

廣開土王碑文 神話의 時間과 空間

忠南大學校 文科大學 日語日文學科 權五浬

신화와 역사의 접속으로 구성된 비문이기에, 그 비문의 세계가 전개되는 시간과 공간도 신화에서 시작된다. 비문은 그 시간을 「昔」과 「舊」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 고구려 건국의 전후를 의미한다.

비문은 「석」이라는 애매한 시점을 명시한 후에 天帝와 河伯女郎의 신혼으로 天帝之子가 卵生한 사실, 그가 降世하여 巡幸한 사실, 부모신을 거명하여 渡河한 사실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문의 「석」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한정지운다.

그리고 「구」는 고구려와 동시에 지상에 할거하던 집단들이 비려·백잔·신라·동부여 등의 주변국으로 발전하여 고구려의 천하에 참여한 시점을 의미한다. 즉 고구려의 건국과 더불어 지상신들의 천하가 천제의 질서에 포섭된 천하로 改變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석」은 천지가 창생되어 고구려가 건국되기 전까지를 의미하고 「구」는 고구려의 건국으로 천하가 완성된 시점을 의미한다.

비문에서는 공간도 신화와 역사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화적인 시간 즉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의 공간은 지상신들이 割據하고 있었다. 그 중의 河伯가 가장 먼저 교류하기 시작하여, 그가 지배하는 공간도 천제의 질서에 포섭되게 되었는데, 여타의 지상신의 공간도 천제의 질서에 포섭되어, 고구려의 천하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한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고구려의 왕통보이다. 그런 왕통보에서 광개토왕의 위치를 나타내는 「十七世孫」이라는 기술의 진위에 집착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비문의 본질을 毀損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昔 舊 神婚 時間 空間 天下 周邊國 天帝 天帝之子

- 一. 序文
- 二. 廣開土王의 系譜上의 位置
- 三. 碑文의 時間
- 四. 碑文의 空間
- 五. 結論

一. 序文

비문은 신화와 역사를 접속하는 구성으로, 고구려의 왕통보를 천제에게 직결시켜 천하를 통치하는 왕통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문은 천제와 현왕의 혈연적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를 신화의 시점으로 逆上시키고, 신화를 영원한 미래로 연장시켜, 고구려의 왕통보를 무한대의 시간 속에 존재시킨다. 그래서 비문의 세계는 옛날(昔)이라는 표현을 기점으로 한다.

비문이 명기한 시간 옛날(昔)이 어느 때를 의미하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러한 애매성이 오히려 비문의 왕통보를 무한한 시간대에 존재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문의 昔이 천지가 창성이 되고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이라는 것은 비문의 문맥으로 확인된다. 그 昔의 시기

에 천제와 하백여랑의 신혼이 이루어지고, 그 신혼으로 난생한 천제지자의 강세 순행의 결과로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그처럼 고구려는 신화적인 시간대인 ㅍ의 시기에 건국된 셈인데, 고구려를 건국한 추모왕은 신화적인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통치하며 존재한 실존의 인물이기도 하다. 고구려의 왕통보가 그 추모왕을 시조로 하여 계승되고 있으므로 그는 분명히 역사상의 인물이다. 그러한 비문의 신화와 역사를 어떻게 분리하는가는 비문 이해에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왕통보의 시간을 사실적으로 규명한다면 추모왕부터 왕비를 건립한 장수왕 3년까지의 시간을 넉넉히 계산한다 해도 50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한 시간이 사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으나 비문의 이해에는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그것은 신화와 역사를 접속시키고 있는 비문의 의미를 간과하고 건비의 목적에 어긋나는 접근방법이다.

그 보다는 신화와 역사를 접속시킨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비문이 목적하는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신화적인 시점에 난생한 추모왕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그 왕통이 역사적인 시점까지 이어져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왕통보의 애매한 신화성이 왕통보의 시간을 태고에서 영원한 미래로 연결하여, 왕통보를 무한대의 시간에 존재시켜준다. 즉 태고로 확인되는 추모왕의 신화적인 시간이 후손들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왕통보가 무한대의 시간에 존속한다는 것은, 천제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통보를 계승하는 조상과 후손이 동질적이라는 것과, 어느 후손이 이룬 흔적을 왕통이 공유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같은 조상과 후손의 혈통적인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 왕통보 본래의 목적인 것이다. 그처럼 무한대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왕통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비문의 이해에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또 비문의 세계는 신화적 공간과 역사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제가 하백여랑과 신혼을 맺었다는 것은 천과 지의 결합으로 천제가 주재하는 천에 대응해서 지상신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집단들이 할거하는 공간이 역사적 천하에서는 비려·백간·신라·동부여 등이 고구려의 주변국으로 발전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천하를 구성하는 주변국들은 신화적 공간이 국가적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그 신화적 공간을 계승한 것이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주변국들이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비문이 명기하고 있는 광개토왕의 왕통보상의 위치와 여타 史書들이 기술하고 있는 위치를 비교하여, 그 상위점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 그 상위점을 바탕으로 하여 비문이 의미하고 있는 시간의 범위도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신화의 천하와 역사적 천하 의미하는 공간의 의미와 상관관계도 확인해보기로 한다.

二. 광개토왕의 계보상의 위치

천제지자가 건국한 고구려의 통치는 천제지자를 매개로 천제의 혈통을 전이받은 후손으로 한정되는데, 그것은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혈통으로 제한하는 일이다. 그처럼 왕통의 계승자를 천제와의 혈연관계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비문의 왕통보이다. 그 왕통보는 광개토왕을 17세손으로 기술하고있다.

그러한 광개토왕의 왕통보상의 위치는 유사기록과 단순 비교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주로 「17세손」 라는 계보상의 위치를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쓰다소우키치(津田左右吉)는 광개토왕을 「19」 대로 기술한 『삼국사기』의 기술을 『위서』 등의 기록과 비교하여, 『삼

국사기』의 기술이 「편자의 생각으로 구조된 것」이라며, 윤색의 결과로 단정하였다¹⁾. 그러한 광개토왕의 왕통보상의 위치는 광개토왕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주장들도 다양하다. 타케다유키오(武田幸男)는 그것을 넷으로 대별하였다. 즉 아오에히데(青江秀)와 요코이타다나오(横井忠直)에 의해서 일찍이 제기된 3대 대주류왕(大朱留王)을 기준왕으로 하고 기준왕을 1대로 하는 설²⁾, 기준왕을 시조 추모왕으로 하고 그 기준왕부터 세는 요코이타다나오의 제 2열³⁾, 기준왕을 추모왕으로 하고 그 손자 대주류왕부터 세는 박시형설⁴⁾, 기준왕을 유류왕(儒留王)으로 하고 그 아들 대주류왕부터 세는 육심원(陸心源) 설 등이었다⁵⁾.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광개토왕의 왕통보상의 위치를 규명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자료를 比定하여 광개토왕의 바른 위치를 규명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비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왕통보가 천제를 부로 하는 추모왕을 시조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광개토왕이 천제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비문이 신화와 역사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왕통보를 천제에 연결시키는 것은, 왕통보의 시간을 태고의 과거로 소급시키고, 그 과거로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이었다. 그처럼 무한한 시간대 속에 존재하는 왕통보를 이해하는데, 「17세손」이라는 표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적인 시간을 규명하여 정확한 시간상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비문이 의도하는 시간의 의미가 상실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대에서, 왕통보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17세손」의 의미는, 숫자상의 정확성보다는, 천제의 혈통을 축으로 하는 왕통보가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 즉 혈통상의 위치와 그 정통성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비문의 왕통보가 4세손부터 16세손까지의 중계왕을 생략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추정할 수 있는 일이다. 비문이 중계왕을 생략한 것은, 왕통보가 역대왕의 계보를 상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제에 유래하는 왕통에 후손왕을 연결시켜, 광개토왕이나 장수왕이 그 왕통을 계승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통보상의 세대적 위치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변동할 수 없는 문제일지 몰라도, 비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과장적인 편차도 허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17세손」이라는 표현은 추모왕을 통하여 천제의 혈통을 전이받았다는 사실의 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17세손」이 아니어도, 추모왕부터 시작되는 왕통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후손에게 계승되어 가는 영원성을 시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몇대손이라 해도 무방한 일이다. 즉 천제의 혈통으로 이어져가는 왕통이 후손에게 영원히 계승되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17세손이 아니라 18세손이라 해도 19세손이라 해도 관계없는 일이었다.

1) 津田左右吉「三國史記 高句麗記의 批判」(『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九, 東京帝國大學, 1922)
 2) 青江秀(『東夫余永樂好太王碑銘之解』, 1884), 横井忠直(『高句麗古碑考』, 1884年12月), 那珂通世(『高句麗古碑考』, 『史學雜誌』47, 1893, 10)
 3) 横井忠直『高句麗古碑考』(無窮會藏, 漢文, 1888年執筆 同「高句麗古碑考」, 『會余錄』5, 亜細亞協會, 1889, 6)
 4) 朴時亨『廣開土王陵碑』(そしえて, 1985)
 5) 陸心源(「高句麗廣開土大王談德紀勳碑跋」, 儀顧堂續跋, 1969), 羅振玉(「高麗好太王碑跋」, 劉承幹『海東金石苑補遺』所有, 1922)

비문은 사실만의 기록도 역대왕의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도 아니다. 많은 자료 중에서 필요한 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그것을 일정한 논리에 입각해서 편집한 구성물이다. 추모왕이 천제지자이고 광개토왕이 그 혈통을 이은 천손이라는 것은 그 논리상의 사실일 뿐이다. 그것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해서 추모왕이나 광개토왕에 대한 기술 모두가 허구라는 것은 아니다. 추모왕의 건국이나 광개토왕이 정토해서 수립했다는 흔적은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왕통이 추모왕을 매개로 하여 천제에 연결되어있는 것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실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접속되는 방법으로 사실을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문의 왕통보는 신화를 통하여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화와 역사가 접속된 왕통보는 천제와 추모왕의 부자관계, 추모왕과 광개토왕의 혈통관계,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부자관계를 통하여 천제와 왕통보간의 혈연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신화를 통하여 천제와의 혈연적 관계를 갖는 것은 천제의 혈통으로 정통성을 획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상이나 후손과의 동질성도 보장받는 일이었다. 또 그 같은 왕통보의 동질성은 조상이 발현한 권능이 후손왕에 의해서도 재발현된다는 가능성도 시사한다.

三. 왕통보의 시간

비문의 왕통보는 「추모왕-유류왕-대주류왕-생략된 증계왕-17세손 광개토왕」으로 되어있으나, 추모왕이 천제를 부로 하고 장수왕이 광개토왕을 부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통보는 「천제-추모왕-유류왕-대주류왕-(생략된 증계왕)-17세손 광개토왕-장수왕」인 셈이다. 것처럼 천제에서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왕통보가 비문 세계의 시간인데, 그것은 신화적인 시간과 역사적인 시간이 접속된 시간의 축이었다. 신화적인 시간과 역사적인 시간이 같은 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추모왕이 가지는 신화성과 사실성을 매개로 해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같은 접속은 사실적인 시간보다는 신화적인 시간에 중점을 두는 시간축의 연장이었다.

역사적인 시간은 추모왕을 기점으로 하여 고구려 왕통이 존속해나가는 미래로 어느 정도는 사실적이다. 그러나 신화를 매개로 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은 분명하지가 않으나, 그것은 확정할 수 없는 태고의 시점을 시사하는데, 비문은 그것을 옛날(昔)로 표기하고 있다. 「석(昔)」은 옛날(古)을 의미하는데, 비문이 의미하는 옛날이 언제인지는 비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것을 마쯔바라타카토시(松原孝俊)는,

「석」은, 한편으로는 「원초=신화적 시간」을 의미하고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석」이 「원초=신화적 시간」이라는 증거로, 그때까지 천지간의 교류는 왕성하였으나, 역사적인 시간으로 이행한 순간부터, 천지의 교류가 두절된 것을 명백히 이야기한다. 역으로 말하자면 역사의 시점이 어느 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사회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지구의 탄생까지, 우주의 탄생까지 역상하는 역사적 시점이지만, 광개토왕대의 고구려에 있어서, 과거의 의미있는 시간적 逆上은 신화가 이야기하는 천지창조의 시점까지이다.⁶⁾

라며, 「석」을 신화적인 시간인 「원초」로 보고, 그것을 「천지창조까지」의 시점으로 구

6) 松原孝俊 「神話學에서 본 『廣開土王碑文』」(『朝鮮學報』第145輯, 조선학회, 1992, 10)

체화하였다. 그것은 「원초」를 「천지창조」의 시점으로 보는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천지창조까지」의 시점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인지, 천지가 창조된 이후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그러나 비문의 시작이⁷⁾ 천과 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모왕과 북부여를 결부시켜서 지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천지가 창조된 이후를 시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비문은 추모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추모왕이 천제와 河伯女郎의 神婚으로 卵生했다는 出지를 생각하면⁸⁾, 그 이전에 천지창조는 물론이고 천지신 간의 신혼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천지는 이미 創成되어, 천은 천제가 주재하고 지상은 하백과 같은 지상신들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존재하는 시점이었다. 그 시점에는 천의 질서가 천하까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과 지상이 서로 다른 질서로 운용(運用)되고 있었다. 즉 천을 주재하는 천제의 질서가 지상에는 미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시점을 포함하는 것이 비문의 「석」인 것이다.

천지간이 천의 질서로 지배되는 것은 천제지자에 의해 고구려가 건국되고, 고구려를 거점으로 하여 천의 질서가 천하에 확산된 후부터이다. 그것은 지상이 공간적인 천하에서 천제의 질서로 통치되는 천하로 개변된 이후에 해당한다. 그 이전까지는 천은 천제의 질서로, 지상은 지상신들의 질서로 통어되고있었다. 그러한 천지간의 질서가 천지신간의 신혼이나 천제지자의 고구려 건국과정을 통하여, 천제의 권위가 절대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천이 우위를 차지하는 질서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천제와 하백여랑의 신혼이고 천제지자에 의한 고구려의 건국이었다.

따라서 비문이 이야기하는 「석」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 그리고 천지신 간의 신혼이 이루어진 시점, 그 신혼에 의해서 탄생한 천제지자(추모왕)가 강세하고 순행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천과 지가 다른 질서로 운용되고 있었던 시점, 그 질서를 천제의 질서에 포섭하려는 천의 의도가 실행되는 시기였다.

그 시점에 천지신간의 신혼이 이루어지고 탄생한 천제지자가 강세한⁹⁾ 것을 보면, 그 시점에 있어서 천지간의 왕래는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쓰바라타카토시가 말했듯이, 천지간의 왕래는 역사적인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즉 천제지자의 건국이 완성될 때까지는 자유로웠던 것이다. 비문은 신혼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았으나 천제가 신혼을 맺으려 천지간을 왕래할 때에는 수행자가 있었기 마련이다. 후에 강세한 추모왕이 마차를 타고 순행했다는 「명가(命駕)」가 그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¹⁰⁾. 마차를 타고 행하는 순행남하는 수행원을 동반하기 마련이었다.

그처럼 천제의 왕래가 수행자를 동반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의 천지간의 왕래는 천제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천제의 수행자까지 왕래가 가능했다는 것은 천지간의 왕래에 제약이 있었다 해도 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것처럼 자유스러웠던 왕래가 역사적인 시점에서는 제한받게 된 것은, 천과의 교류를 고구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시점

7) 「唯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碑文)

8) 「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中略)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碑文)

9) 추모왕의 출자를 기술한 부란강세(剖卵降世)의 강세는 천제지자의 탄생이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위치, 즉 천을 의미한다.(拙稿「廣開土王碑文의 正統性의 論理」, 『日本文化學報』第10集, 韓國日本文化學會, 2001)

10) 「君子之車 戎車既駕 四牡業業」(『詩經』小雅 采薇)

에도 추모왕이 세위를 즐겨하지 않아 승천한 일이나¹¹⁾, 광개토왕이 기국(棄國)하여 승천한 것이¹²⁾ 그런 교류의 실현이었다.

비문에서의 고구려는 천과의 교류만이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교류도 독점하는데, 천과의 교류는 천제와의 혈연으로 보장된 것이었고, 주변국들과의 교류는 천제의 질서가 고구려를 매개로 하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천과 교류했다는 사실은 천하의 통치를 마친 왕이 승천한 사실이나 추모왕이 부모신을 거명하는 방법으로 도하한 것으로 추정가능하다¹³⁾. 것처럼 천과의 교류를 고구려가 독점하는 것은 천제에 직결되는 왕통이 혈통으로 보장받는 특권이었는데, 또 그것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 되는 당위성이기도 하였다.

비문이 상징적으로 시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의 또 하나가 「구(舊)」이다. 비문은 「구시(舊是)」라는 표현으로 고구려와 백잔·신라·동부여와의 관계가 맺어진 시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구려와 주변국들간의 교류를 시사하는 원초적인 시점이다. 비문은 고구려의 건국만을 기술할 뿐 여타 주변국의 건국과정에 관해 기술한 것은 일체 없다. 다만 고구려의 입장에서 설정한 관계가, 백잔과 신라가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百殘新羅舊是屬民)이었다는 기술과 동부여가 옛날 추모왕 때부터 속민이었다(東夫余舊是鄒牟王屬民)는 기술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고구려와 비려·백잔·신라·동부여 등의 주변국으로 하여 성립된 천하의 내용과 그 성립시기를 암시해주는 기술이었다.

그 시기를 시사하는 「舊」는 「옛날」·「원래부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석(昔)」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비문의 주변국들은 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비문이 기술한 「구」와 「석」이 옛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인데, 지상에 최초로 건국된 것이 고구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비문의 논리를 생각하면, 고구려와 주변국이 천하를 성립시킨 시기를 시사하는 「구」를 고구려의 건국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고구려와 주변국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百殘新羅舊是屬民」은 고구려와 주변국으로서의 백잔·신라가 관계를 맺은 시점이 고구려가 건국된 이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부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東夫余舊是鄒牟王屬民」에는 「추모왕」이 첨가되어, 그 「구시」라는 시점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고구려와 주변국으로 구성되는 천하가 완성된 시기, 추모왕이 천하를 완성하고 통치하는 시점으로서의 「구시」였다. 따라서 비문의 「구시」는 추모왕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석」이후, 추모왕에 의해서 고구려가 건국되고 고구려와 주변국의 관계가 정립된 시점, 즉 천하가 완성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구」의 시점에 고구려가 백잔·신라·동부여 등을 「속민」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가 주변국을 거느리는 천하가 추모왕조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문에서 「속민」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그것이다. 그런데 천하가 추모왕조에 완성된 것이라면 광개토왕의 되풀이되는 정토의 의미도 보다 확실해진다. 추모왕이 완성한 천하를 계승받아 정토행위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천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통치내용의 개변은 될 지언정 영토의 확장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광개토왕의 정토는 영토확장이 아니라 추모왕이 완성한 천하를 계승받아 그 原像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¹⁴⁾.

11) 「不樂世位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龍首昇天」(碑文)

12) 「昊天不弔卅有九宴駕棄國」(碑文)

13) 「鄒牟王爲我連葭浮龜應聲卽爲連葭浮龜然後造渡」(碑文)

14) 拙稿「廣開土王碑文神話世界와 周邊國」(『日本文化學報』第11集, 韓國日本文化學會,

비문은 신화적 시점인 「석」과 「구」라는 표현을 통하여 천제에 연유하는 왕통보의 시간을 신화의 시점으로 역상시켜, 왕통보가 영원한 미래로 계승되어갈 가능성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이러한 무궁한 시간대에 왕통보를 존속시키는 것이 비문의 신화가 갖는 의미이다. 비문은 것처럼 무한대의 시간에 존재하는 왕통보에, 광개토왕의 위치를 「17世孫」으로 기술하였다. 그것이 다른 사서의 「19」와 다르다해서, 그 상위점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을 규명한다는 면에서는 중요한 일이겠으나, 비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적인 시간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무한한 시간대에서 천제의 혈통으로 계승되어 가는 왕통의 영원성이나, 동일왕통보로 보장되는 조상과 후손의 동질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집착하는 것은 비문이 의도하는 신화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

四. 碑文의 空間

비문은 천지를 공간으로 하는 세계와 고구려가 중심이 되는 천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지로 구성된 세계가 지를 천제의 질서에 포함시킨 공간을 의미하는 천하를 포함한다. 그 세계와 천하는 신화와 역사가 접속하는 무한대의 시간에 존재하는데, 천은 천제가 거주하며 주재하고 천제지자가 난생한 공간이다. 천제지자가 천에서 난생했다는 것은, 지상으로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비문의 「부란강세(剖卵降世)」로 확인되는 사실이다¹⁵⁾. 이처럼 천하의 통치를 마치고 승천하는 추모왕의 탄생지가 천이었다는 것은, 천지간의 이동이 천을 시발점으로 하여 천을 귀복처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개토왕의 사거를 의미하는 「호천부조 연가기국(昊天不弔 卅有九 宴駕棄國)」¹⁶⁾도 승천을 원하는 광개토왕이 승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이처럼 천하의 통치를 마친 왕이 승천했다는 사실은 천제지자의 후손들, 즉 왕통보를 계승한 후손왕들의 승천 가능성과 천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천제지자와 그 후손들이 천지간을 왕래하고 천이 천하의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천지간의 질서가 천우위의 질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천의 주도로 교류가 이루어진 결과였다. 천지가 창생될 때부터 천이 우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비문의 기술에 의하면 창생된 천은 천제가 주재하고 지상에는 하백과 같은 지상신들이 통치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천지가 각각 다른 질서로 지배되고 있었다.

그러한 관계가 변하게 되는 것은 천제와 하백여랑의 신혼과 같은 교류를 계기로 한다. 비문은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았으나, 천제와 하백여랑을 부모신으로 해서 천제지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천지신간의 신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천지간의 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제가 지상신을 대표하는 하백의 딸과 신혼을 맺는다는 것은, 천지신간의 교류를 전제로 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어느 쪽이 주도했는가도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비문의 천지간의 왕래가 천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천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천이 주도하는 교류는 천이 적극적이었던 것과, 그 적극성

2001, 8)

15) 拙稿「廣開土王碑문의 正統性的 論理」(『日本文化學報』第10集, 韓國日本文化學會, 2001. 2)

16) 拙稿「廣開土王碑문의 正統性的 論理」(『日本文化學報』第10集, 韓國日本文化學會, 2001. 2)

17) 拙稿「廣開土王碑문의 正統性的 論理」(『日本文化學報』第10集, 韓國日本文化學會, 2001. 2)

18) 「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碑文)

은 우위한 질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지신간의 신혼은 그런 질서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화의 일반적인 신혼이란 천에서 래임한 남신의 우위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같은 고구려의 건국을 기술한 『東明王篇』이나 일본 천황의 정통성을 기술한 『古事記』 등의 신혼(神婚)이 그렇다. 『동명왕편』에서는, 천제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해모수(解慕漱)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하백의 딸과 신혼을 맺을 것을 원하나 하백은 그것을 거절한다¹⁹⁾. 그리고 주술 경쟁을 통해 해모수의 우수성을 인식한 후에야 그 신혼을 허가하였다²⁰⁾. 그것은 그때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천지간의 질서관계가 주술경쟁으로 신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천지간의 질서정립이 신혼과 같은 천지간의 교류를 계기로 해서 정립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이다²¹⁾.

신혼과 같은 계기를 통하여 질서의 정립이 있었기에 천제지자의 강세도 고구려의 건국도 가능하였다. 따라서 천제지자의 강세를 천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천제의 뜻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순행하던 천제지자가 부모신을 거명하는 방법으로 도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것처럼 고구려의 건국이 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천제가 천하에 관여할 수 있는 당위성을 획득하는 일이었다. 또 그것은 천하의 통치를 천제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통을 계승하는 후손으로 한정하는 일이었다.

비문에는 天命이나 天子라는 표현이 없으나 비문의 「天帝之子」·「皇天之子」·「昊天」 등이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신화의 「천제」는 「帝」와 「天」으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원래 「帝」는 殷이 제사하는 절대신이었고 「天」은 殷을 멸망시키고 건국한 周가 제사하는 절대신이였다. 신을 소중하게 모시는 殷人들은 龜甲과 獸骨을 이용하는 점복으로 신의 뜻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신을 帝·祖上神·自然神 등으로 나누어 제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帝가 절대신이였다²²⁾. 殷人들은 인간사에 관여된 일이나 자연 현상 농작물의 작황 등이 帝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으로 믿고 帝의 뜻을 알려고 占卜에 열중하였다. 그 같은 흔적을 당시의 유물인 갑골문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문습니다. (商)왕에게 祥瑞로움을 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²³⁾.

甲辰日에 점을 쳐서 爭이 문습니다. 우리는 馬方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帝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까²⁴⁾.

라고, 은인들은 왕을 상서롭게 하는 일이나 정벌에서의 승패가 帝의 권능에 좌우되는 것으로 믿고있었다. 은인들은 그 만큼 帝에 절대적인 신망을 두고 있었다. 그러한 은을 멸망시키고 周를 건국한 周人들은 帝가 아닌 天을 조상신으로 하고 있었다. 주는 은의 절대신에 天을 점복시키는 방법으로 은을 포섭하려 하였다. 주는 자신들의 절대신인 天과 은의 帝를, 帝가 天에 주거한다는 사실로²⁵⁾ 연계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즉 帝에서 宗祖神的인

19) 「告云渠何人 乃敢放輕肆 報云天帝子 高族請相累(河伯大怒 遣使告曰 如是何人 留我女乎 王報云 我是天帝之子 今欲如何伯結婚)」(『東明王篇』)

20) 「連漪碧波中 河伯化作鯉 王尋變爲獺 立捕不待跬 又*生兩翼 搏擊河大鷲 彼爲鹿而走 我爲豺而進」(『東明王篇』)

21) 참고 「廣開土王碑文神話의 王統譜」(『日本語文學』第11輯, 韓國日本語文學會, 2001, 9)

22) 尹乃鉉 「天下思想의 始源」(『中國의 天下思想』, 民音社, 1988)

23) 羅振玉 『殷墟書契後編』 下卷, 24葉 12片

24) 董作賓 『殷墟文字乙編』 (中央研究員歷史言語研究所, 1949, 5303片)

요소와 혈연적인 偏頗性을 제거하여 종족성을 초월시키고, 至上神으로서의 본래의 제기능과 공평하고 엄한 기능을 강조하며 天과 연계시키고 있었다²⁶⁾.

천을 숭배하는 주는 은이 멸망한 것을 은의 수호신인 제에 대한 주족의 수호신인 천의 승리로 보았다. 그것을 『시경』은,

문왕계선 위에 계시어 해처럼 하늘에 빛나시도다. 주는 오래된 나라지만, 천명은 새롭거니. 찬란한 우리나라. 온당한 하늘의 분부. 문왕계선 하늘을 오르내려 上帝 곁에 계시도다. (중략) 위대한 것은 천명이여라. 보라 저 殷의 자손들 그리 찬란하던 그 자손들. 그 수효 헤아릴 수 없지만 천명이 한번 내리시니 모두가 주에 귀속했도다²⁷⁾.

라고 은의 멸망이나 주의 건국이 천명에 의한 결과라 했다. 그런데 주의 조상신인 문왕이 항상 제의 옆에 있었다는 것은, 천을 정점으로 은의 수호신인 제와 주의 수호신인 문왕의 혼령이 결합되어 신의 계보를 형성하는 일이었다. 즉 은의 숭신의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²⁸⁾. 그 천이 우위를 점하고 천하에 관여하는 사실을 『시경』은,

천으로부터 명령이 있었으니, 이 문왕에게 명하기를, 주의 京師에서 다스리게 하셨도다²⁹⁾.

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천이 천하보다 우위를 점하는 질서에 천하가 포함이 되고, 천하는 천명을 받거나 천의 수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천제가 천을 주재하고 천제지자가 강세하여 건국하는 비문의 천도 그러한 천으로 볼 수가 있다.

천에 대응하는 지가 창생된 것은 천과 동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지는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천의 운행에 순응한다³⁰⁾. 즉 천의 先施를 받들어 지가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천과 지가 서로 어울려 功能을 교합함으로써 만유는 生長收藏하는 생성변화의 일련 과정을 갈 수 있는 것이다³¹⁾. 이는 천과 지의 질서 관계의 논리로, 비문이 이야기하는 천지간의 질서 관계를 추정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비문이 기술한 지에는 하백과 같은 지상신들이 지배하는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집단들은 신혼을 맺기 위해 강세한 천제를 통하여 천을 접하고 천의 권능을 경험하여, 천우위의 질서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천제와의 신혼이 천제가 강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건 하백여랑이 승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건 간에 천지신 간의 질서적 대립은 있었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지가 천의 질서에 포섭된 것이다. 그런 질서의 정립을 통하여, 지는 공간적인 천

25) 천이 帝의 주거지라는 것은 皇하는 하늘에 계시는 상제를 의미하는 「皇天上帝」나 천하를 두루 비춘다는 「帝光天之下」(『詩經』 益稷) 등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26) 安部健夫 『中國人の 天下思想』(引文堂, 1956)

27) 「文王在上 於昭于天 周雖旧邦 其命維新 有周 丕顯 帝命不時 文王陟降 在帝左右(中略) 假哉天命 有商孫子 商之孫子 其麗不億 上帝概命 候于周伏」(『詩經』 大雅 文王)

28) 尹乃鉉 前掲論文

29) 「有命自天 命此文王 于周于京」(『詩經』 大雅 大明)

30) 「『周易』 첫머리의 乾坤二掛는 바로 천지의 위치와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천은 능동적으로 시행해주는 입장이 되고 지는 수동적으로 順承하는 입장이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춘하추동과 같은 曆程의 추이는 천의 운전에 속하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生長收藏과 같은 현상은 지의 변화에 속한 것이다(金忠烈 「中國<天下思想>의 哲學的 基調와 歷史傳統의 形成」, 『中國의 天下思想』, 民音社, 1988)

31) 「二氣(天地) 交感以相與 (中略) 天地感而萬物化生」(『周易』 咸卦. 金忠烈 의 前掲論文)

하에서 천제의 질서에 포섭된 천하로 개변된 것이다.

공간적인 천하는 하백 같은 지상신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천제의 질서에 포섭된 후에는 비려·백잔·신라·동부여 등의 천하를 구성하는 주변국으로 형태지어 등장한다. 이처럼 여러 주변국이 등장하는 사실은 창생된 지상에는 하백을 비롯한 여타 많은 지상신들이 할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의 하백이 천제와 교류를 가졌으며, 그 교류를 통하여 하백이 지배하는 공간은 천제의 질서를 확산시키는 근원지로서의 천하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에 비해 여타 지상신들은 천제가 왕래할 경우나, 강세한 천제지자가 순행하는 과정에서 천의 질서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즉 여타 지상신들은 하백과는 달리, 천의 의도를 경계하고 저항하다 정도당한 것이다. 천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여 왕화되지 못한 세력이었기에 언젠가는 천의 恩澤으로 왕화될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하의 중심에 포함되지 못하고 왕화되어 주변국으로 발전된 것이다.

하백은 천의 질서를 인정하고 신혼을 맺었기에, 하백이 통치하는 공간은 천하의 중심을 차지하는 고구려라는 국가로 형태지어지고, 것처럼 왕화되지 못하고 천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던 집단들은 후에 천의 질서에 포섭되어 비려·백잔·신라·동부여 등의 주변국이 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문의 「百殘新羅舊是屬民」 이고 「東夫余舊是鄒牟王屬民」이다. 또 백잔·신라·동부여가 「구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추모왕대로 상정되는 「구시」에 고구려의 속민이었다는 것은, 추모왕대에 그 주변국들이 천제의 질서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추모왕대에 고구려의 천하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당연히 의문을 갖게되는 것이 광개토왕에 의한 정토활동과 천하상의 변화문제이다. 비문은 이미 추모왕대에 모든 주변국들이 「속민」화 된 것으로 단정하고 있고, 후손들은 그 때 완성된 천하를 계승하여 통치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광개토왕이 행한 정토활동은 기존의 천하 속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통치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려나 백잔을 정토하고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나³²⁾, 그것도 통치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즉 계승받아 통치하는 천하의 원상에 이상이 발생하여, 그 원상을 회복하려는 통치활동이었던 것이다³³⁾.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 즉 천제나 천제지자가 천지를 왕래하고 지상에는 하백과 같은 지상신들이 할거하고 있었던 시기를 신화의 시기라 한다면, 고구려가 건국이 되고 지상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공간이 비려·백잔·신라·동부여로 형태화되어 천하가 구성된 시기를 역사적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신화의 시대는 천지간의 교류를 통하여 천제가 지상신과 신혼을 맺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천이 지에 관여할 수 있는 기득권의 확립이었고, 천제지자의 강세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천의 질서가 지배하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활동이었다. 그러한 천의 기득권이 천제지자의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 되는 당위성이었다.

그처럼 신화적 천하를 계승한 것이 역사적 고구려 천하였고, 그것은 고구려가 중심이 되는 중화사상을 실현한 세계였다. 그런 의미에서 비문의 세계는 신화와 역사의 접속으로 구성된 세계이고 그것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사실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구성을 갖는 것이 『古事記』의 천하이다. 그곳에는 葦原中國과 黃泉國·根之堅州國·海神國으로 구성되는 신화적인 천하와 大八島國과 百濟·新羅로 구성되는 역사적인 천하가 존재하는데, 신화적인 천하와 역사적인 천하는 본질적으로 대응된다. 葦原中國과 大八島國, 그리고 黃泉國·根之堅州國·海神國들이 百濟·新羅와 대응하며 葦原中國과 大八島國을 천하

32) 「破其三部落六七百當牛馬羣羊不可稱數(中略)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碑文)

33) 拙稿「廣開土王碑文神話世界의 周邊國」(『日本文化學報』第11集, 韓國日本文化學報, 2001, 8)

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³⁴⁾. 그것은 일본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관념을 실현하는 구성이었다.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비문의 천하도 관념이 실현된 세계일 뿐이다.

신화의 시대가 천지를 공간으로 하는 것에 비해, 사실적인 천하는 천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천은 천하의 통치영역에서는 제외시켜야 된다. 천지간의 질서가 정립된 상황에서 천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천하의 통치에 임하는 후손, 그리고 천하의 통치를 마친 후에는 천으로 귀복하는 후손이 천까지 통치했다는 것은 모순된다. 따라서 역사적 천하의 공간적 범위는 추모왕이 순행남하한 공간이다. 그것을 좀더 구체화된 것이 광개토왕이 정토한 영역을 포함하는 공간과 수묘조에 소개되는 공간이었다. 비문에 기술된 지명들은 지리적 역사적인 면에서도 의미를 가지겠지만, 비문이 천제지자가 건국한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것과 그 천하의 통치가 천제지자의 후손에게 한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왕통의 텍스트인 이상, 그 지명들은 현실을 신화세계에 연계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있기 마련이다.

五. 結論

신화와 역사의 접속으로 구성된 비문이기 때문에, 그 비문의 세계가 전개되는 시간과 공간도 신화에서 비롯된다. 비문은 그 시간을 「昔」과 「舊」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것이 고구려의 건국을 전후로 해서 나누어진다는 것은 비문이 「구」로 백잔·신라·동부여 등이 고구려에 「속민」하게 된 시점을 의미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비문은 「석」이라는 애매한 시점을 명시한 후에 천제가 하백여랑과 신혼을 맺어 천제지자를 난생시킨 사실, 천제지자가 강세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기 위하여 순행남하한 사실, 그 도중에 부모신을 거명하여 도하한 사실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비문의 「석」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한정해준다. 즉 「석」은 천지가 창조된 후, 천은 천제가 주재하고 지는 하백과 같은 지상신들이 지배하는 시기, 천제가 하백여랑과 신혼을 맺은 시기, 난생한 천제지자가 강세한 시기, 그리고 순행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舊是」로 사용되는 「구」는 고구려가 건국되면서 지상에 할거하고 있던 집단들이 비려·백잔·신라·동부여 등으로 형태지어, 주변국으로 고구려의 천하에 참여하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비문의 「舊是屬民」이나 「舊是鄒牟王屬民」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것은 주변국들이 언제부터 고구려의 「속민」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기록이고, 또 지상신들이 할거하고 있던 공간이 고구려 건국과 더불어 비려·백잔·신라·동부 등으로 발전하여 형태지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 이전에는 강세순행하는 천제지자에 저항하던 지상세력이, 천제지자가 대행하는 천제의 질서에 포섭되어 주변국으로 형태지어져 나타난 것이다. 즉 고구려의 건국과 더불어 지상신들이 지배하던 천하가 천제의 질서로 지배되는 천하로 개변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昔」은 천지가 창생된 후부터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을 의미하고 「舊」는 고구려가 건국되고 천하가 완성된 시점을 의미한다.

그처럼 비문이 고구려를 신화적인 시간에 위치시키는 것은, 고구려의 시간을 원초적 태고로 소급시키고, 또 그것은 고구려 왕통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었다. 그런 시간에 고구려가 건국되었다는 것은, 고구려가 지상에 건국된 최초국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에 위치하는 당위성이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천의 주도하

34) 神野志隆光 「天下の歴史」(『古事記の世界觀』, 吉川弘文館, 1986)

에 이루어지고 천하의 통치를 마친 후손들이 승천한다하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천이 지상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질서 관계였으며, 그 같은 천지간의 질서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왕통의 계승자는 통치자로 군림하고, 그가 통치하는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인 것이다.

비문에서는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도 신화와 역사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화적인 시간 즉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에는 천제가 주재하는 천에 대응하여, 하백과 같은 지상신이 지배하는 집단들이 활거한 공간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하백이 가장 먼저 천제와 교류를 통하여 천제의 질서에 포섭되었는데, 여타의 공간도 천제지자가 순행남하하는 과정을 통하여 천제의 질서에 포섭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포섭된 공간이 고구려가 건국되고 동시에 주변국인 비려·백잔·신라·동부여 등으로 발전된 것이다.

천지간의 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에 대응하고 있던 지상세력, 강세하여 순행하는 천제지자의 건국활동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거주했던 공간, 즉 천제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던 세력들이 주거하던 공간이 천제지자의 건국과 더불어 고구려의 주변국으로 개편되고, 고구려의 천하가 주변국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는 것은, 그 천하가 신화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현실의 정통성을 신화에서 구하고, 왕통이 통치하는 공간을 신화로 보장받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고구려의 왕통보이다.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며 그 시간과 공간을 축으로 하고있는 것이다. 그런 시간대에서 광개토왕의 왕통보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十七世孫」이라는 기술이 「十九」 대로 되어있는 『삼국사기』 등의 기술과 상위를 보인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것은, 비문의 이해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이 사실의 규명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해도, 그것이 그대로 비문의 이해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문의 의도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 비문의 시간과 공간이다.

A Study of Time and Space in the Myth of King Kwanggaeto the Great's Monumental Inscription

Oyub Kwon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inscription is composed of a myth and historical facts as well, the time and space, in which a world of the inscription develops, is attributed to a myth. The inscription divides the time into the Chinese characters, 'seok (昔)' and 'koo (舊),' identical in meaning 'old times,' each of which means the previous and following time of the foundation of Koguryo respectively.

After the inscription specifies such an ambiguous point of time as 'seok,' it describes the son of Cheonjae's oviparous birth through the marriage of Cheonjae the Creator and Habaekyeorang, his advent on the world, and his crossing of a river by calling his parent gods' names. This time span is the extent of 'seok.' And also, 'koo' means the point of time when tribal groups holding their own territories developed into such adjoining nations as Biryu, Baekjan, Shilla, East Puyo, etc., and then the Koguryo

empire established itself. That is to say, this was the time of the renovation of this world into Cheonjae the Creator's world as well as the foundation of Koguryo.

The space in the inscription consists of a mythical space and a historical space. In a mythical space, that is, the space before the foundation of Koguryo, earthly gods defended their own territories. Among them, Habaek, for the first time, entered into contact with Cheon and then the space governed by him came into Cheonjae the Creator's order. In like manner, so did other earthly gods' spaces. Subsequently, Koguryo had completed its world.

It is Wangtongbo of Koguryo that exists in such a limitless time and space. Thus, it is not of great significance to hold fast to authenticity in the description of Seventeen Saekye marking King Kwanggaeto's position in this Wangtongbo. This, rather, may possibly damage the nature of the inscription.

K C I